

# 부동산 찬바람... 경매시장도 한파

## 광주 아파트 매각률 7월 30%대 급락 전남 경매건수도 102건... 전국 최저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6월 50%대였던 매각률이 7월들어 30%대까지 급락했다. 10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51건으로 이 중 매각건수는 85건으로 매각률이 33.9%에 그쳤다. 이는 전달 53.4%와 지난

해 같은 기간 51.9%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매각률이 저조했던 것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2단지 아파트(30건)와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아파트(57건) 등이 모두 유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매각가율(감평가 대비 매각가 비율)은 전달 93.5%에서 90.5%로 다소 떨어졌고, 평균 응찰자도 4.9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아파트 경매시장은 7월 경매 진행건수가 102건으로 3개월 연속 전국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매각 건수는 36건으로 35.3%의 매각률을 기록해 전달의 48%보다 많이 떨어졌으며 매각가율은 96%, 평균 응찰자 수는 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토지는 1685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전달에 이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702건이 팔려 매각률도 41.7%에 달했다. 지난달 목포에 위치한 감정이 50억

원대 대지가 감평가 대비 24%에 낙찰되면서 매각가율이 60%대에 머물렀다가 이번 달에는 82%까지 올랐다. 이색 경매 물건도 많았다. 완도군 완도읍의 축양장이 28억2900여만원에 시장 나와 두차례나 유찰되면서 오는 30일 세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또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감정이 61억4800여만원의 장례식장을 비롯해 담양군 대덕면의 감정이 23억7900여만원의 납골당, 북구 각화동의 감정이 21억4000여만원의 교회 등이 경매를 앞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 신제품 MD 시리즈** 수원 디지털시티에 있는 삼성전자 홍보관에서 한 도우미가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멀티디스플레이 MD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MD 시리즈는 전용 스탠드와 함께 23인치 모니터를 3대 또는 6대로 연결해 가로·세로로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지역자본 光銀인수 특별 배려해야”

### 광주상의, 총리·청와대 등에 건의문 전달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목포·순천·광양·여수 등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주은행이 지역자본에 의해 인수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문에서 “최근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시점에 지역금융기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광주은행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돼 외국자본이

나 다른 지역 자본에 인수된다면 광주은행은 이름만 지방은행인 반쪽짜리 향토은행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은행이 광주·전남 지역 기업이나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인과 시·도민 등 지역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매각 공고 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문에서 지역자본

에 의해 광주은행이 인수돼야 할 당 위성으로 광주·전남 시·도민의 향토은행에 대한 염원, 광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 회수, 광주은행의 기업이익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투자손실 시·도민에 대한 배려 등 4가지를 들었다. 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원자재 수급 안정화 지원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 현대기아차그룹

현대·기아차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협력사들의 원자재 수급 안정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10일 주요 원자재인 철관을 일괄 구입 후 협력사에 구입가격으로 공급하는 ‘사급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협력사 부품 가격에 반영된 주요 원자재 가격의 국제시세 인상분이 2·3차 협력사 납품가격에도 반영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철관 사급제는 원자재 비중이 가장 높은 철관을 일괄 구매해 공급함으로써 가격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흡수, 협력업체가 양질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의 철관 공급가를 기준으로 납품가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기업 ‘성장엔진’ 화학계열사서 찾는다

### SK에너지·LG화학 등 인력·설비 고도화 장점

주요 대기업 그룹이 화학 분야 계열사를 앞세워 미래의 ‘먹을거리’인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과 설비가 다른 계열사에 비해 고도화된 화학 부문 계열사가 그룹이 추진하는 미래 성장 산업의 첨병 역할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SK

에너지는 기존의 석유화학 투자 외에 새로운 전자·정보 소재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리튬 이온 전지 분리막(LiBS·Lithium Ion Battery Separator)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정부의 3개 라인에서 생산 중이다. LG그룹 화학계열사인 LG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 부문은 고부가 소재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에 회사의 앞날을 걸고 있다. 한화그룹 화학계열사인 한화케미 같은 김승연 회장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한 태양광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한화케미같은 이달 초 세계 4위 수준의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솔라켄 파워솔루션의 지분 49.9%를 4300억원에 인수했다. 웅진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웅진케미칼은 고강도, 고탄성의 ‘슈퍼섬유’로 불리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 이색 애완동물 수입 급증

### 카멜레온·도마뱀 등 상반기 406만달러어치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애완동물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멜레온·도마뱀·이구아나·거북 등 이색 애완동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관세청이 최근 애완동물 수입 경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애완동물 수입규모는 모두 406만 4000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9%가 증가했다. 이색·희귀 애완동물 가운데 카멜레온은 올해 상반기에 1131마리가 수입돼 작년 상반기(75마리)보다 14배 이상 늘어났다. 도마뱀 87.1%(1472마리→2754마리), 거북 84.6%(142마리→262마리), 이구아나 27.9%(4300마리→5500마리), 열대어 15.3%(1672마리→1927마리), 조류 8.6%(1632마리→1772마리) 등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애완동물 수입은 지난 2007년 9205마리, 2008년 6002마리, 2009년 4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엔 2501마리가 수입돼 작년 상반기(2475마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등처럼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통해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고용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정부가 임금감소분 보전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해외체류자 등 2년 면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도 해외 체류 또는 군복무로 인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킬 수 없을 때는 최장 2년간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요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근무·생업·취학에 따른 해외체류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거나 계속 살지 못할 때는 최장 2년을 의무 기간에서 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781.13 (-0.04)
코스닥지수	482.16 (-1.71)
금리 (국고채 3년)	3.91% (-0.01)
원·달러 환율	1,168.70원 (+8.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번원 경매부동산의 딱딱 광고

<p>1. [부동산 정보]</p> <p>2. [부동산 정보]</p> <p>3. [부동산 정보]</p>	<p>4. [부동산 정보]</p> <p>5. [부동산 정보]</p> <p>6. [부동산 정보]</p>	<p>7. [부동산 정보]</p> <p>8. [부동산 정보]</p> <p>9. [부동산 정보]</p>
----------------------------------------------------------	----------------------------------------------------------	----------------------------------------------------------

광주지방법원 - 시법부동산 - 부동산